

#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과 보육선택\*

## The Employment and Child Care Choices of Mothers with Infants

청암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손 경 화  
경희대학교 아동학전공  
교 수 조 복 희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ongam College

Full-time Lecturer : Kyeng Hwa Shon

Child Studies,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Bok Hee Cho

###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 the employment and childcare choices of mothers of infants. Study participants were 543 mothers, with infants younger than 40 months, in Sunche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employment belief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orked outside the home, showed more positive scores regarding employment when they had jobs and/or higher educational levels. Second, mothers' use of child-care was more likely to begin when their children were at younger ages when the mothers worked outside the home, had higher educational levels and/or perceived their employment circumstances as including the ideas "Always have internal conflicts over whether to quit the job or not" and/or "Have never thought of quitting the job". Third, we examined how the features of the childcare environment and childcare type affected the mothers.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의 취업(maternal employment), 보육선택(child care choice), 영아보육(infant child care)

Corresponding Author : Kyeng Hwa Sh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ongam College, 224-9 Deokwon-dong, Suncheon city, Jeollanam-do, 540-740, Korea Tel: +82-061-740-7287 Fax: +82-061-740-7294 E-mail: vivid814@hanmail.net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40년동안 28%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 50.2%로 여성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통계청, 2008, pp. 13-14).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OECD 30개 국가의 평균 61%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며, 이중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대 여성과 40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이 결혼전(20대)에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30대들어 결혼과 더불어 출산 및 가사에 전념하면서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는 단지 수입증대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자아실현과 자기발전을 꾀한다(Burris, 1991; Thompson, 1993)는 취업의 장점과 함께 가정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역할 속에서 신체적 부담과 자녀양육소홀에 따른 심리적인 죄책감인 취업의 단점을 동시에 경험한다. 반면 가정에 전념하여 자녀를 돌보는 비취업모는 직장생활로 인한 역할부담은 없으나,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을 적게 느끼고, 가사 일에 따른 끊임 없는 육체적 작업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취업모 역시 욕구불만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조금숙, 조중열, 2004).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둔 어머니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권경숙, 2008; 박성연, Rubin, 2008; 박정모, 김은주, 2004; 이대균, 황주미, 2008; Abidin, 1992; Belsky & Rovin, 1988; Dietz, Jennings, & Abres, 2005; Dix, Reinhold, & Zambarano, 1990; Pungello & Kurtz-Costers, 1999),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높은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취업모는 자신의 취업과 아동양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타인보육을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업모들은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부재를 대신하기 위해 보육 시설과 같은 양육지원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여 자녀의 안전 및 보육을 제공받으려 타인보육을 이용하고 있으며(서문희, 2001, pp. 221-265), 비취업모들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정교육만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기에 타인보육을 선택하고 있다(류우영, 이숙, 1996; 박해미, 1994; 보건복지부, 2002; 이문정, 2003).

이전보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타인보육의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NICHD(1996)은 여성의 취업선택으로 인한 사회진출로 자녀양육에 대한 보육경험이 점차 증가하

면서 출생 후 영아기부터 하루 3~4시간이상 타인보육경험을 하고 있으며, 교사나 또래와 관계를 맺는 보육시간의 양과 아동이 경험하는 보육기관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이는 비단 미국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 속에서 보육서비스 소비자로서 어머니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어머니와 영유아 모두에게 적합한 보육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모는 가족의 경제적·인구통계적 상황과 보육의 다양한 선택조건, 그리고 부모의 직장환경에 따라 보육을 선택하게 된다(Emlen, 1999;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1997; Pungello & Kurtz-Costes, 1999; Vandell & Wolfe, 2000). 특히 어머니의 취업은 보육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언제 보육을 시작하고, 어디서 보육을 받고, 누가 대리 보육자로 적합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어떠한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와 같은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보육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육선택은 신념, 양육관, 양육자 역할에 대한 가치관, 아동양육환경, 그리고 아동을 위한 선택의 잠재적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Farkas, Duffet, & Johnson, 2000; Hyde & McKinley, 1993; Pungello & Kurtz-Costes, 1999, 2000). Hyde과 McKinley(1988)는 모성취업에 긍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가정보다는 직장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더 일찍 타인보육을 시작하며, 더 많은 시간 타인보육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Greenberg, Goldberg, Crawford와 Granger(1988)는 기존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한 논의가 부족하고, 많은 모성취업 관련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의한 아동발달의 영향력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하였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과 비취업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논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어머니의 취업환경의 특성을 알아내어 취업과 관련된 요소와 가정환경의 질을 연결하는 기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Moorehouse, 1991).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육을 선택하는 주체인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유아를 위해 최적의 보육을 선택하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타인보육을 이용하는 가족들의 다양한 경향성과 영유아의 보육 시작 시기, 유형, 질, 강도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Hofferth, Shauman, Henke, & West, 1998; NICHD, 1997; Singer, Fuller, Keiley, & Wolf, 1998), 보육선택에 관한 광범위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Burchinal & Nelson, 2000; Fuller, Holloway, & Liang, 1996; NICHD, 2005; Pungello & Kurtz-Costes, 2000, 1999; Wolf, 200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유형과 보육선택을 탐색하고자 다양한 보육유형을 선택하는 학부모간의 선택요인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으며(강기숙, 2009; 김승권, 2005; 김연희, 박용임, 2006; 김지경, 2004; 서문희 외, 2005; 임유경, 2008; 장영은, Pungello, 2007), 양육스트레스와 역할만족도, 보육선택과 보육만족도를 관련지어 설명해 보려는 시도는 있었으나(김연희, 박용임, 2006; 김희경, 2003; 정대수, 2005) 모성취업신념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과 보육선택이 어머니의 보육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가정변인과 영아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관련변인과 보육선택을 살펴보고,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만족스런 어머니의 자녀양육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관련변인은 어떠한가?
  - 1-1 어머니의 가정환경변인(모연령, 모학력, 취업여부, 가정소득)과 영아변인(영아의 연령, 성별)에 따라 취업신념에 차이가 있는가?
  - 1-2 어머니의 가정환경변인(모연령, 모학력, 취업여부, 가정소득)과 영아변인(영아의 연령, 성별)에 따라 취업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 1-3 어머니의 가정환경변인(모연령, 모학력, 취업여부, 가정소득)과 영아변인(영아의 연령, 성별)에 따라 취업상황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선택은 어떠한가?
  - 2-1 어머니의 가정환경변인(모연령, 모학력, 취업여부, 가정소득)과 영아변인(영아의 연령, 성별)에 따라 보육특성(보육시작시기, 보육이용시간)은 어떠한가?
  - 2-2 어머니의 가정환경변인(모연령, 모학력, 취업여부, 가정소득)과 영아변인(영아의 연령, 성별)에 따라 보육유형(어머니보육, 조부모보육, 시설보육)은 어떠한가?
3.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과 영아변인, 취업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3-1 보육특성(보육시작시기, 보육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 영아변인, 취업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3-2 보육유형(어머니보육, 조부모보육, 시설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 영아변인, 취업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아(40개월미만)<sup>1)</sup>를 둔 어머니 총 543명이었다. 대상 어머니는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인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의 보육유형을 알아보고자 타인양육자에게 2개월 이상 양육을 받고 있는 어머니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을 통해 이중 부실기재 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54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sup>2)</sup>

		구분	n(%)
어머니의 연령		30세 이하	193(35.5)
		31세~35세	235(43.3)
		36세 이상	101(18.6)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147(27.1)
		전문대졸	222(40.9)
		대졸 이상	170(31.3)
어머니 취업유형	취업모	비취업모	280(51.6)
		취업모	75(13.8)
		전문직	93(17.1)
		사무직	95(17.5)
어머니의 취업 상황인식		기타	95(17.5)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80(14.7)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180(33.2)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	222(40.9)
가정소득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60(11.2)
		200만원 이하	183(33.7)
		201만원~300만원	223(41.1)
영아연령		301만원 이상	134(24.7)
		0 ~ 12개월	81(14.9)
		13 ~ 24개월	180(33.1)
영아성별		25 ~ 40개월	282(52.0)
		남아	275(50.6)
		여아	268(49.4)

1) 일반적으로 영아는 36개월 미만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준을 40개월 미만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영아전담 및 시설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1년을 단위로 보육을 받고 있었기에 37개월 이상 40개월 미만의 아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합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으며, 백분율의 합도 변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측정도구

### 1) 모성취업신념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Greenberger, Goldberg, Crawford와 Granger(1988)가 제작한 어머니 취업의 결과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BACMEC)을 손경화와 조복희(2009)가 한국 어머니의 실정에 맞추어 번안·수정하여 척도개발을 통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취업신념질문지는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관한 긍정성 15문항과 부정성 12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 Likert 척도로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6점)로 평정하였다. 취업의 긍정성(예; 자녀에게 취업모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에 대한 훌륭한 역할모델이 될 것이다)의 모든 문항은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취업신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취업의 부정성(예; 취업모의 아이는 어머니와 온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의 모든 문항은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취업신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취업 긍정성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2, 취업 부정성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9이었다.

### 2)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이희경(1981)이 사용한 Farel(1980)의 Maternal attitudes toward employment』를 박성옥(1993)이 축소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3문항씩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그렇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긍정적 영향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취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업이 자녀양육에 더 유익하게 작용하며, 어머니 자신에게나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 영향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취업이 어머니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취업이 자녀양육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며, 어머니 자신에게나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4,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1,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3,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6이었다.

### 3) 보육 선택

보육선택을 측정하고자 질문내용은 선행연구(김미화, 2005; 임유경, 2008; 조은진, 2004; Diane & Margaret, 2001; Hunts, 1992; So-Jung Seo, 2000)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육선택은 보육특성과 보육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보육특성은 보육시작시기와 보육이용시간으로 구분하여 보육시작시기는 영아가 태어나서 보육경험을 처음 시작한 시기로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40개월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육이용시간은 영아가 타인에 의해 경험하는 일일 보육시간을 주당 이용횟수와 함께 일일 시간단위로 기록한 후 일주일간 이용하는 총보육이용시간으로 환산하여 주당 30시간 이하와 31시간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보육유형은 어머니, 조부모(시댁 및 친정부모), 시설보육(기관 및 가정보육)으로 구분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특성을 알고자 영아전담 기관어린이집 3곳과 가정보육 어린이집 5곳을 선정하여 시설장을 통해 질문지를 발송한 후 회수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소 2곳, 아동 전문병원 및 소아과 등 의료기관 3곳, 문화센터 및 아동관련시설 3곳을 선정하여 개별 접촉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제보자 모집 표집방법(인터넷이용)을 혼합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중 누락된 질문지나 부실기재한 질문지를 제외시켜 최종 543부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F$ -검증, 카이검증 그리고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선택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과 영아변인, 취업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관련변인

##### 1) 모성취업신념

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그리고 영아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취업신념은 하위요인 중 취업의 부정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 = 3.86, p < .05$ ).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하 집단에서는  $3.41(SD = .72)$ , 31~35세 집단에서는  $3.32(SD = .75)$ , 36세 이상 집단에서는  $3.16(SD = .64)$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취업의 부정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Duncan 사후결과를 통해 검증한 결과, 30세 이하의 어머니가 36세 이상의 어머니보다 취업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의 부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취업신념은 하위요인 중 취업의 긍정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 = 6.31, p < .01$ ). 고졸 이하 집단에서  $3.66(SD = .52)$ , 전문대졸 집단에서  $3.76(SD = .59)$ , 대졸 이상 집단에서  $3.89(SD = .64)$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취업의 긍정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Duncan 사후결과를 통해 검증한 결과,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고졸 이하의 어머니와 전문대졸의 어머니보다 취업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의 긍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취업신념은 두 가지 하위요인인 취업의 긍정성( $t = 6.23, p < .001$ )과 취업의 부정성( $t = -2.88, p < .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취업의 긍정성은 비취업모가  $3.62(SD = .56)$ , 취업모가  $3.93(SD = .59)$ 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았다. 또한, 취업의 부정성은 비취업모가  $3.41(SD = .69)$ , 취업모가  $3.22(SD = .77)$ 로 나타나 비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자신의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가치관 및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자신이 취업을 하게 되면 자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전반적인 영아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영아 연령에 따른 취업신념은 취업의 부정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 = 4.31, p < .01$ ). 취업의 부정성은 영아 월령이 12개월 이하 집단은  $3.52(SD = .69)$ , 13~24개월 집단은  $3.24(SD = .69)$ , 25~40개월 집단은  $3.32(SD = .75)$ 로 나타났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취업의 부정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Duncan 사후결과를 통해 검증한 결과, 0~12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가 다른 연령집단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취업의 부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 2)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 학

<표 2> 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모성취업신념의 차이

구분	취업의 긍정성			취업의 부정성		
	M(SD)	t	F	M(SD)	t	F
모연령	30세 이하	3.77(.54)	1.86	3.41(.72)b	3.86*	
	31~35세	3.74(.62)		3.32(.75)ab		
	36세 이상	3.87(.64)		3.16(.64)a		
모학력	고졸 이하	3.66(.52)a	6.31**	3.43(.62)	2.58	
	전문대졸	3.76(.59)a		3.27(.79)		
	대졸 이상	3.89(.64)b		3.29(.71)		
취업여부	취업	3.93(.59)	6.23***	3.22(.77)	-2.88**	
	비취업	3.62(.56)		3.41(.69)		
가정소득	200만원 이하	3.80(.55)	.69	3.35(.79)	1.17	
	201~300만원	3.79(.61)		3.35(.66)		
	301만원 이상	3.72(.62)		3.24(.72)		
영아연령	0~12개월	3.85(.59)	.87	3.52(.69)b	4.31**	
	13~24개월	3.77(.61)		3.24(.69)a		
	25~40개월	3.75(.58)		3.32(.75)a		
영아성별	남아	3.79(.60)	.50	3.33(.73)	.26	
	여아	3.76(.59)		3.31(.72)		

\* $p < .05$ , \*\* $p < .01$ , \*\*\* $p < .001$ , a,b는 Duncan 사후검증결과임.

력, 취업여부, 가정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취업에 대한 태도는 하위요인 중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5.12, p < .01$ ).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하 집단에서는  $2.93(SD = .67)$ , 31~35세 미만 집단에서는  $2.78(SD = .66)$ , 36세 이상 집단에서는  $2.69(SD = .69)$ 로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취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Duncan 사후결과를 통해 검증한 결과, 30세 이하의 어머니는 31~35세의 어머니와 36세 이상의 어머니보다 취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취업에 대한 태도는 하위요인 중 어머니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3.34, p < .05$ ). 고졸 이하 집단에서  $3.81(SD = .52)$ , 전문대졸 집단에서  $3.89(SD = .55)$ , 대졸 이상 집단에서  $3.96(SD = .51)$ 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취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 어머니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Duncan 사후결과를 통해 검증한 결과, 대졸 이상의 어머니는 다른 학력집단의 어머니보다 취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 어머니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나타냈다. 즉, 모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학력에 따른 취업신념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일수록 취업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넓

고, 다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태도가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어머니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취업에 대한 태도는 하위요인 중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t = 4.69, p < .001$ )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t = -3.96,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취업모가  $3.62(SD = .60)$ , 비취업모가  $3.37(SD = .66)$ 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취업모가  $2.94(SD = .68)$ , 비취업모가  $3.18(SD = .69)$ 로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취업이 자녀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하위요인 중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 = 4.74, p < .01$ ).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3.58(SD = .63)$ , 201~300만원 집단에서  $3.52(SD = .61)$ , 301만원이상 집단에서  $3.36(SD = .70)$ 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의 가정소득에 따른 취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Duncan 사후결과를 통해 검증한 결과, 301만원 이상의 가정소득을 보고한 어머니는 다른 소득 집단의 어머니보다 취업에 대한 태도에 있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높게 나타냈다. 즉, 고소득층의 어머니보다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표 3〉 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차이

( $n = 542$ )

구분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어머니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M(SD)	t	F	M(SD)	t	F	M(SD)	t	F	M(SD)	t	F
모 연령	30세 이하	3.50(.66)			3.12(.64)			3.88(.52)			2.93(.67)b		
	31~35세	3.47(.64)			3.08(.69)		1.46	3.87(.55)		1.73	2.78(.66)a		5.12**
	36세 이상	3.57(.62)			2.98(.77)			3.98(.47)			2.69(.69)a		
모 학력	고졸 이하	3.42(.67)			3.12(.64)			3.81(.52)a			2.91(.59)		
	전문대졸	3.50(.64)		1.84	3.07(.71)		.82	3.89(.55)ab		3.34*	2.77(.72)		2.26
	대졸 이상	3.56(.61)			3.02(.70)			3.96(.51)b			2.78(.67)		
취업 여부	취업	3.62(.60)			2.94(.68)			3.92(.58)			2.80(.71)		
	비취업	3.37(.66)	4.69***		3.18(.69)		-3.96***	3.85(.49)	1.34		2.83(.62)		-.61
가정 소득	200만원 이하	3.58(.63)b			3.08(.65)			3.91(.55)			2.87(.71)		
	201~300만원	3.52(.61)b		4.74**	3.02(.72)		.07	3.87(.52)		.36	2.79(.65)		.97
	301만원 이상	3.36(.70)a			3.05(.70)			3.91(.53)			2.77(.66)		
영아 연령	0~12개월	3.43(.60)			3.15(.65)			3.90(.52)			2.93(.60)		
	13~24개월	3.55(.65)		1.09	3.05(.73)		.70	3.87(.58)		.18	2.80(.71)		1.34
	25~40개월	3.49(.64)			3.08(.67)			3.90(.50)			2.79(.66)		
영아 성별	남아	3.47(.64)			3.06(.69)			3.91(.50)			2.82(.67)		
	여아	3.52(.63)	-.94		3.07(.69)		-1.0	3.87(.56)	.85		2.81(.67)		.16

\* $p < .05$ , \*\* $p < .01$ , \*\*\* $p < .001$ , a,b는 Duncan 사후검증결과임.

〈표 4〉 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상황인식의 차이

						빈도(%)
구분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항상 그만두어야 겠다는 갈등을 겪는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chi^2$	
모 연령	30세 이하	71(36.8)	22(11.4)	60(31.1)	40(20.7)	8.16
	31~35세	88(37.4)	37(15.7)	53(22.6)	57(24.3)	
	36세 이상	31(30.7)	13(12.9)	26(25.7)	31(30.7)	
	계(n = 529)	190(35.9)	72(13.6)	139(26.3)	128(24.2)	
모 학력	고졸 이하	64(43.5)	25(17.0)	35(23.8)	23(15.6)	13.05*
	전문대졸	73(32.9)	31(14.0)	62(27.9)	56(25.2)	
	대졸 이상	58(34.1)	17(10.0)	45(26.5)	50(29.4)	
	계(n = 539)	195(36.2)	73(13.5)	142(26.3)	129(23.9)	
가정 소득	200만원 이하	55(30.1)	20(10.9)	66(36.1)	42(23.0)	15.52*
	201~300만원	86(38.6)	30(13.5)	49(22.0)	58(26.0)	
	301만원 이상	54(40.3)	23(17.2)	28(20.9)	29(21.6)	
	계(n = 540)	195(36.1)	73(13.5)	143(26.5)	129(23.9)	
영아 연령	0~12개월	44(54.3)	5(6.2)	16(19.8)	16(19.8)	15.08*
	13~24개월	63(35.0)	25(13.9)	50(27.8)	42(23.3)	
	25~40개월	90(32.0)	43(15.3)	77(27.4)	71(25.3)	
	계(n = 542)	197(36.3)	73(13.5)	143(26.4)	129(23.8)	
영아 성별	남아	100(36.4)	38(13.8)	78(28.4)	59(21.5)	2.17
	여아	97(36.3)	35(13.1)	65(24.3)	70(26.2)	
	계(n = 542)	197(36.3)	73(13.5)	143(26.4)	129(23.8)	

\* $p < .05$ .

### 3) 어머니의 취업상황인식

가정환경변인과 영아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상황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 가정소득, 그리고, 영아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취업상황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 $\chi^2 = 13.05, p < .05$ ), 전체적으로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36.2%)의 취업상황인식은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26.3%)의 취업상황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어머니 중 고졸 이하 집단이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가 각각 43.5%, 17.0%로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보다 더 높았다. 전문대졸 집단은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가 각각 27.9%, 25.2%로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보다 더 높았다. 대졸 이상 집단은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가 각각 26.5%, 29.4%로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보다 더 높았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직장보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포기한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보다는 직장에 나가 취업을 하면서 역할 갈등과 직업정체성의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소득에 따른 취업상황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chi^2 = 15.52, p < .05$ ), 전체적으로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36.1%)의 취업상황인식은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26.5%)의 취업상황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만원 이하 집단은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가 각각 36.1%, 23.0%로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집단보다 더 높았다. 201~300만원 집단은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이 각각 38.6%, 13.5%로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보다 더 높았다. 301만원 이상 집단은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가 각각 40.3%, 17.2%로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보다 더 높았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의 보탬을 위해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연령에 따른 취업상황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chi^2 = 15.08, p < .05$ ), 전체적으로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36.3%)의 취업상황인식은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26.4%)의 취업상황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

다. 0~12개월 집단은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가 각각 54.3%, 6.2%로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보다 더 높았다. 13~24개월 집단은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가 각각 27.8%, 23.3%로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집단보다 더 높았다. 25~40개월 집단은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가 각각 27.4%, 25.3%로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가정보다 직장을 선택함으로써 취업으로 인한 갈등과 정체감을 더 높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선택

1) 어머니의 보육특성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특성을 살펴보고자 타인에 의한 보육시작시기, 보육이용시간을 알아보았다. 먼저 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보육시작시기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여부, 모학력, 취업상황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여부와 관련하여 보육시작시기를 자녀의 월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 = 13.26,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25~40개월이상(27.0%)보다 12개월 이하(41.7%)의 빠른 시기에 타인보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모의 경우 12개월 이하는 91명(46.2%), 13~24개월은 60명(30.5%), 25~40개월은 46명(23.4%)로 타인보육시작이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더 빨리 시작하였다. 반면, 비취

<표 5> 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보육시작시기<sup>3)</sup>

구분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40개월	빈도(%) $\chi^2$
취업 여부	취업	91(46.2)	60(30.5)	46(23.4)	13.46**
	비취업	5(15.2)	12(36.4)	16(48.5)	
	계(n = 230)	96(41.7)	72(31.3)	62(27.0)	
모연령	30세 이하	34(41.5)	25(30.5)	23(28.0)	.49
	31~35세	46(45.1)	30(29.4)	26(25.5)	
	36세 이상	20(41.7)	16(33.3)	12(25.0)	
	계(n = 232)	100(43.1)	71(30.6)	61(26.3)	
모학력	고졸 이하	14(25.9)	18(33.3)	22(40.7)	10.73*
	전문대졸	50(49.0)	28(27.5)	24(23.5)	
	대졸 이상	37(45.7)	27(33.3)	17(21.0)	
	계(n = 237)	101(42.6)	73(30.8)	63(26.6)	
취업 상황 인식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3(10.3)	10(34.5)	16(55.2)	24.97***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5(25.0)	7(35.0)	8(40.0)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	45(47.9)	26(27.7)	23(24.5)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하지 않는다	48(51.1)	30(31.9)	16(17.0)	
	계(n = 237)	101(42.6)	73(30.8)	63(26.6)	
가정 소득	200만원 이하	37(40.2)	27(29.3)	28(30.4)	3.60
	201~300만원	43(46.7)	25(27.2)	24(26.1)	
	301만원 이상	21(39.6)	21(39.6)	11(20.8)	
	계(n = 237)	101(42.6)	73(30.8)	63(26.6)	
영아 연령 <sup>4)</sup>	0~12개월	19(100)	-	-	
	13~24개월	47(66.2)	24(32.8)	-	
	25~40개월	35(23.6)	56(37.8)	57(38.5)	
영아 성별	남아	61(48.0)	31(24.4)	35(27.6)	5.54
	여아	40(36.0)	42(37.8)	29(26.1)	
	계(n = 238)	101(42.4)	73(30.7)	63(26.9)	

\* $p < .05$ , \*\* $p < .01$ , \*\*\* $p < .001$ .

3) 분석을 위해 타인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시 케이스가 최소 5개 이하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보육특성 중 영아연령에 따른 보육시작시기는 기술통계(%)만 제시하였다.  
4) case가 5미만으로 적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하지 않고, 기술통계분석만 실시함.



업모의 경우 12개월 이하는 5명(15.2%), 13~24개월은 12명(36.4%), 25~40개월은 16명(48.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하여 보육시작시기를 자녀의 월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 = 10.73,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25~40개월(26.6%)보다 12개월 이하(42.6%)의 빠른 시기에 타인보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 12개월 이하는 14명(25.9%), 13~24개월은 18명(33.3%), 25~40개월은 22명(40.7%)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대졸인 경우 12개월 이하는 50명(49.0%), 13~24개월은 28명(27.5%), 25~40개월은 24명(23.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하는 37명(45.7%), 13~24개월은 27명(33.3%), 25~40개월은 17명(21.0%)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빨리 타인보육을 시작하였다.

취업상황인식과 관련하여 보육시작시기를 자녀의 월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 = 24.97,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25개월~40개월(26.6%)보다 12개월 이하 (42.6%)의 빠른 시기에 타인보육

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의 경우 12개월 이하는 3명(10.3%), 13~24개월은 10명(34.5%), 25~40개월은 16명(55.2%)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의 경우 12개월 이하는 5명(25.0%), 13~24개월은 7명(35.0%), 25~40개월은 8명(40.0%)으로 나타났다.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의 경우 12개월 이하는 45명(47.9%), 13~24개월은 26명(27.7%), 25~40개월은 23명(24.5%)으로 나타났으며,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의 경우 12개월 이하는 48명(51.1%), 13~24개월은 30명(31.9%), 25~40개월은 16명(17.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의 취업상황인식을 하는 어머니는 현재 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대신할 제2의 보육자가 대리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의 어머니보다 더 이른 시기에 타인보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연령과 관련하여 보육시작시기는 영아의 연령이 현

〈표 6〉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보육이용시간

		구분	주당30시간 이하	주당31시간 이상	빈도(%)
취업 여부	취업		24(12.2)	172(87.8)	9.70**
	비취업		11(33.3)	22(66.7)	
	계(n = 229)		35(15.3)	194(84.7)	
모연령	30세 이하		13(15.7)	70(84.3)	.12
	31~35세		15(14.9)	86(85.1)	
	36세 이상		8(17.0)	39(83.0)	
계(n = 231)		36(15.6)	195(84.4)		
모학력	고졸 이하		9(16.7)	45(83.3)	1.80
	전문대졸		12(11.8)	90(88.2)	
	대졸 이상		15(18.8)	65(81.3)	
계(n = 236)		36(15.3)	200(84.7)		
취업 상황 인식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10(34.5)	19(65.5)	10.41*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4(20.0)	16(80.0)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		11(11.6)	84(88.4)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하지 않는다		11(12.0)	81(88.0)	
계(n = 236)		36(15.3)	200(84.7)		
가정 소득	200만원 이하		15(16.1)	78(83.9)	.10
	201~300만원		13(14.4)	77(85.6)	
	301만원 이상		8(15.1)	45(84.9)	
계(n = 236)		36(15.3)	200(84.7)		
영아 연령	0~12개월		3(15.8)	16(84.2)	2.12
	13~24개월		7(10.0)	63(90.0)	
	24~40개월		26(17.6)	122(82.4)	
계(n = 237)		36(15.2)	201(84.8)		
영아 성별	남아		26(20.6)	100(79.4)	6.19*
	여아		10(9.0)	101(91.0)	
	계(n = 237)		36(15.2)	201(84.8)	

\* $p < .05$ , \*\* $p < .01$ .

〈표 7〉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유형

				빈도(%)	
	구분	어머니	조부모	시설보육	$\chi^2$
취업여부	취업	55(23.3)	74(31.4)	107(45.3)	224.74***
	비취업	246(88.2)	6(2.2)	27(9.7)	
	계(n = 515)	301(58.4)	80(15.5)	134(26.0)	
모연령	30세 이하	108(57.1)	28(14.8)	53(28.0)	2.42
	31~35세	136(59.4)	40(17.5)	53(23.1)	
	36세 이상	53(56.4)	13(13.8)	28(29.8)	
	계(n = 512)	297(58.0)	81(15.8)	134(26.2)	
모학력	고졸 이하	94(65.3)	16(11.1)	34(23.6)	5.32
	전문대졸	116(55.0)	38(18.0)	57(27.0)	
	대졸 이상	92(55.1)	29(17.4)	46(27.5)	
	계(n = 522)	302(57.9)	83(15.9)	137(26.2)	
취업 상황 인식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	169(86.2)	5(2.6)	22(11.2)	142.76***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52(73.2)	6(8.5)	13(18.3)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	46(33.3)	38(27.5)	54(39.1)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38(31.7)	34(28.3)	48(40.0)	
	계(n = 525)	305(58.1)	83(15.8)	137(26.1)	
가정소득	200만원 이하	91(51.4)	29(16.4)	57(32.2)	5.81
	201~300만원	131(60.9)	33(15.3)	51(23.7)	
	301만원 이상	81(61.8)	21(16.0)	29(22.1)	
	계(n = 523)	303(57.9)	83(15.9)	137(26.2)	
영아연령	0~12개월	63(80.8)	10(12.8)	5(6.4)	46.11***
	13~24개월	110(64.0)	32(18.6)	30(17.4)	
	25~40개월	132(46.8)	41(14.5)	103(36.5)	
	계(n = 526)	305(58.0)	83(15.8)	138(26.2)	
영아성별	남아	151(57.6)	46(17.6)	65(24.8)	1.46
	여아	154(58.3)	37(14.0)	73(27.7)	
	계(n = 526)	305(58.0)	83(15.8)	138(26.2)	

\* $p < .05$ , \*\* $p < .01$ , \*\*\* $p < .001$ .

재 12개월 이하인 경우는 19명(100.0%)이 12개월 이하에 타인보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13~24개월인 경우 12개월 이하에 47명(66.2%), 13~24개월에 24명(32.8%)이 시작하였다. 또한, 현재 25~40개월인 경우 12개월 이하에 35명(23.6%), 13~24개월에 56명(37.8%), 25~40개월에 57명(38.5%)이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연령에 따라 타인보육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가정환경 및 영아 변인에 따라 타인보육시작시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현재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정환경 변인과 영아 변인에 따른 보육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표 6)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상황인식, 영아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여부와 관련하여 보육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 = 9.70,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주당 31시간 이상(84.7%) 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는 24명(12.2%), 주당 31시간 이상은 172명(87.8%)이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는 11명(33.3%), 주당 31시간 이상은 22명(66.7%)이

었다. 이는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취업모보다 많기 때문에 종일보육이나 연장보육을 덜 이용하고 있었다.

취업상황인식과 관련하여 보육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 = 10.41,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주당 31시간 이상(84.7%)동안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는 10명(34.5%), 주당 31시간 이상은 19명(65.5%)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는 4명(20.0%), 주당 31시간 이상은 16명(80.0%)으로 나타났다.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는 11명(11.6%), 주당 31시간 이상은 84명(88.4%)으로 나타났으며,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는 11명(12.0%), 주당 31시간 이상은 81명(88.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의 취업상황인식을 하는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와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 타인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영아성별과 관련하여 보육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 = 6.19, p < .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성별에 관계없이 주당 31시간 이상(84.8%) 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남아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는 26명(20.6%), 주당 31시간 이상은 100명(79.4%)이었으며, 여아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는 10명(9.0%), 주당 31시간 이상은 101명(91.0%)이었다.

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유형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7>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상황인식 그리고 영아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취업여부

에 따른 보육유형에서 유의한 차이( $\chi^2 = 224.74,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 '시설보육'이 107명(45.3%), '조부모'가 74명(31.4%), '어머니'가 55명(2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가 246명(88.2%), '시설보육'이 27명(9.7%), '조부모'가 6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모는 직장으로 인해 주로 어린이집을 선택한 반면, 비취업모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보호하는 보육유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선택에 있어 비취업모가 시설보육을 훨씬 더 적게 이용한다는 선행연구(이문정, 2003)와 일치한다.

취업상황인식에 따른 보육유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 = 142.76,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 중『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어머니'가 169명(86.2%), '시설보육'이 22명(11.2%), '조부모'가 5

<표 8> 보육시작시기<sup>6)</sup>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Wald	Exp(B)	구분	B	SE	Wald	Exp(B)	구분	B	SE	Wald	Exp(B)
독립변수															
어머니 연령		-.03	.04	.69	.97		-.03	.04	.67	.97		.08	.05	3.34	1.09
어머니 학력				4.73				.75						4.31	
어머니 학력(1)		-.76	.44	2.96	.47		-.05	.42	.02	.95		<b>.92*</b>	.47	3.81	2.50
어머니 학력(2)		.14	.35	.15	1.15		-.30	.37	.65	.74		.23	.42	.29	1.26
취업여부(1)		-.32	.72	.20	.72		.08	.63	.02	1.08		-.13	.63	.04	.88
가정소득				.31					1.66					1.34	
가정소득(1)		.07	.41	.03	1.07		-.51	.41	1.57	.60		.55	.49	1.27	1.73
가정소득(2)		.21	.41	.27	1.24		-.40	.41	.98	.67		.27	.49	.32	1.32
영아성별(1)	<b>12개월</b>	-.44	.31	2.08	.64	<b>13~24</b>	<b>.60*</b>	.31	3.73	1.82	<b>25~40</b>	.15	.34	.20	1.17
취업의 긍정성	<b>이하<sup>6)</sup></b>	<b>.66*</b>	.33	4.03	1.93	<b>개월<sup>7)</sup></b>	-.31	.33	.85	.74	<b>개월<sup>8)</sup></b>	-.44	.36	1.51	.64
취업의 부정성		.12	.22	.28	1.13		-.27	.26	1.07	.77		.16	.25	.41	1.18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13	.30	.17	1.13		.25	.32	.62	1.28		-.47	.34	1.92	.62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35	.29	1.49	1.43		.29	.31	.89	1.34		<b>-.77*</b>	.34	5.26	.46
취업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02	.36	.01	.98		-.25	.36	.50	.78		.41	.42	.98	1.51
취업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19	.29	.44	.83		.08	.29	.07	1.08		.19	.31	.38	1.21
취업상황인식				5.61					1.07					<b>7.44*</b>	
취업상황인식(1)		<b>-1.93*</b>	.83	5.36	.15		-.13	.69	.04	.88		<b>1.94**</b>	.72	7.29	6.95
취업상황인식(2)		-.66	.67	.97	.52		-.16	.62	.07	.85		1.06	.65	2.62	2.87
취업상황인식(3)		-.04	.33	.01	.96		-.36	.35	1.06	.70		.56	.42	1.80	1.75
log likelihood $\chi^2$			268.06		$R^2 = .20$			263.52		$R^2 = .09$			228.42		$R^2 = .19$

\* $p < .05$ .

- 5) 보육시작시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독립변수 중 영아의 연령을 제외시켰다.
- 6) dummy variable로 처리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명목변수 범주 보육시작시기(12개월 이하 = 1, 13~24개월, 25~40개월 = 0)
- 7) dummy variable로 처리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명목변수 범주 보육시작시기(13~24개월 = 1, 12개월 이하, 25~40개월 = 0)
- 8) dummy variable로 처리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명목변수 범주 보육시작시기(25~40개월 = 1, 12개월 이하, 13~24개월 = 0)

명(2.6%)이었으며,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어머니’가 52명(73.2%), ‘시설보육’이 13명(18.3%), ‘조부모’ 6명(8.5%)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모 중 『항상 그만두겠다는 갈등을 겪는다』는 ‘시설보육’이 54명(39.1%), ‘어머니’가 46명(33.3%), ‘조부모’가 38명(27.5%)이었으며,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하지 않는다』는 ‘시설보육’이 48명(40.0%), ‘어머니’가 38명(31.7%), ‘조부모’가 34명(28.3%)로 나타났다. 대체로 비취업상태에 있는 어머니는 주로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어머니 보육을 선택하는 어머니의 대다수가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보육을 함으로써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양육의 죄책감을 줄이고, 취업으로 인한 갈등을 갖지 않았다. 반면, 취업상태에 있는 어머니는 시설보육과 조부모보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보육을 하기보다는 조부모나 시설보육을 통한 대리보육을 통해 자신의 취업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상태에 있는 어머니가 어머니보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영아기 시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취업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하고있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취업중이지만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정시간만 일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양육한 경우 어머니보육

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연령에 따른 보육유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 = 46.11,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2개월의 영아를 둔 어머니는 ‘어머니’가 63명(80.8%), ‘조부모’가 10명(12.8%), ‘시설보육’이 5명(6.4%)로 나타났으며, 13개월~24개월의 영아를 둔 어머니는 ‘어머니’가 110명(64.0%), ‘조부모’가 32명(18.6%), ‘시설보육’이 30명(17.4%)으로 나타났다. 25개월~40개월의 영아를 둔 어머니는 ‘어머니’가 132명(46.8%), ‘시설보육’은 103명(36.5%), ‘조부모’가 41명(14.5%)로 나타났다. 대체로 24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주로 어머니가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25개월 이상의 시기는 그 이전시기보다 확연히 시설을 통한 보육이 증가되어 영아연령에 따른 보육유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과 영아변인

#### 1) 보육특성에 미치는 영향력

보육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특성을 보육시작시기와 보육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8>과 같이 전체 어머니의 보육시작시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전체 어머니 중 12개월 이하에 타인보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취업의 긍정성, 취업상황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주어

<표 9> 보육이용시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독립변수	B	SE	Wald	Exp(B)
보육 이용 시간 <sup>9)</sup>	어머니 연령	-.08	.60	1.94	.92
	어머니 학력			1.65	
	어머니 학력(1)	.19	.57	.10	1.20
	어머니 학력(2)	.62	.50	1.54	1.86
	취업여부(1)	.67	.77	.76	1.95
	가정소득			1.54	
	가정소득(1)	-.62	.61	1.03	.54
	가정소득(2)	-.11	.61	.03	.89
	영아연령	.01	.02	.12	1.01
	영아성별(1)	<b>-1.01*</b>	.44	5.16	.37
	취업의 긍정성	-.10	.45	.04	.91
	취업의 부정성	-.32	.30	1.10	.73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b>.89*</b>	.43	4.20	2.43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45	.41	1.26	1.58
	취업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70	.53	1.73	.50
	취업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43	.39	1.23	.65
	취업상황인식			3.23	
	취업상황인식(1)	-1.13	.83	1.85	.32
	취업상황인식(2)	-.47	.79	.35	.63
	취업상황인식(3)	.33	.52	.40	1.39
log likelihood $\chi^2$			163.67	$R^2 = .22$	

\* $p < .05$ .

9) dummy variable로 처리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의 명목변수 범주 보육이용시간(30시간 이하 = 1, 31시간 이상 = 0)

〈표 10〉 보육유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Wald	Exp(B)	구분	B	SE	Wald	Exp(B)	구분	B	SE	Wald	Exp(B)
독립변수															
어머니 연령		.01	.03	.11	1.01		-.02	.04	.27	.98		-.02	.03	.53	.98
어머니 학력			2.34						1.15				.22		
어머니 학력(1)		.01	.35	.00	.99		.01	.40	.00	1.01		-.15	.32	.21	.86
어머니 학력(2)		-.40	.31	1.73	.67		.31	.33	.92	1.37		-.06	.28	.04	.95
취업여부(1)		<b>-2.89***</b>	.34	72.47	.06		<b>2.55***</b>	.54	22.50	12.82		<b>1.65***</b>	.34	22.99	5.19
가정소득			.14						3.52					3.30	
가정소득(1)		-.01	.36	.00	.99		-.72	.39	3.43	.49		.53	.32	2.71	1.70
가정소득(2)		.09	.33	.08	1.10		-.51	.37	1.89	.60		.14	.31	.20	1.15
영아연령		-.07***	.01	24.85	.94		-.01	.01	.52	.99		<b>.07***</b>	.01	31.71	1.08
영아성별(1)		-.18	.26	.52	.83		.13	.28	.21	1.14	시설	-.22	.23	.92	.34
취업의 긍정성	어머니 <sup>10)</sup>	<b>-.75**</b>	.26	8.68	.47	조부모 <sup>11)</sup>	<b>.60*</b>	.29	4.23	1.83	보육 <sup>12)</sup>	.28	.24	1.42	1.32
취업의 부정성		.19	.20	.93	1.21		.13	.21	.36	1.13		-.11	.18	.41	.89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07	.23	.08	1.07		-.29	.27	1.19	.75		-.08	.22	.13	.93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34	.23	2.30	.71		-.03	.26	.02	.97		.01	.21	.00	1.01
취업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25	.28	.83	1.29		.31	.32	.93	1.36		-.46	.26	3.19	.63
취업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02	.24	.01	.98		.36	.27	1.85	1.44		-.06	.22	.09	.94
취업상황인식			5.66						3.46					1.05	
취업상황인식(1)		<b>.81*</b>	.42	3.62	2.40		-.86	.61	2.00	.42		-.37	.42	.79	.69
취업상황인식(2)		.19	.46	.17	1.21		.01	.56	.00	1.01		-.08	.44	.03	.92
취업상황인식(3)		-.07	.34	.04	.94		<b>.21*</b>	.32	.44	1.23		.00	.29	.00	1.00
log likelihood $\chi^2$			414.71	$R^2 = .58$				334.65	$R^2 = .31$				465.27	$R^2 = .31$	

\* $p < .05$ , \*\* $p < .01$ , \*\*\* $p < .001$ .

취업의 긍정성이 높을수록 보육시작시기가 12개월 이하의 이른 시기에 시작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상황인식 중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에 비해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다른 취업상황을 인식한 어머니보다 더 늦게 시작하였다. 전체 어머니 중 13개월에서 24개월이하에 타인보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주어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이 시기에 타인보육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전체 어머니 중 25개월에서 40개월이하에 타인보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학력,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취업상황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주어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에,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높을수록, 취업상황에 있어 『아이 때문에 결코 취업을 하지 않는다』에 비해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인식한 어머니의 경우 이 시기에 타인보육을 선택하였다. 즉, 전체 어머니의 보육시작시기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의 긍정성이 높을수록 더 일찍 타인보육을 시작한 반면, 취업의 부정성이 높을수록,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낮을수록 타인보육을 늦게 시작하였다.

보육이용시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표 9〉와 같이 영아의 성별,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어 영아의 성별이 여아일 경우, 취업이 자녀에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주당 30시간 이하의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동안 타인보육을 이용하였다.

2) 보육유형에 미치는 영향력

보육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유형은 어머니, 조부모, 시설보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10〉와 같이 ‘어머니’ 유형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영아연령, 취업의 긍정성, 취업상황인식이 영향을 주어 어머니가 비취업상태일수록,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취업의 긍정성이 낮을수록, 취업상황인식이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의 어머니에 비해 『원하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의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보육을 하고 있었다. ‘조부모’ 유형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의 긍정성, 취업상황인식이 영향을 주어 어머니가 취업상태에 있을수록, 취업의 긍정성이 높을수록, 『아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의 어머니에 비해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하지 않는다』의 어머니의 경우 조부모를 통한 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시설보육’ 유형은 취업여부와 영아연령이 영향을 주어 어머니가 취업상태에 있을수록, 영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시설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유형은 어머니의 취업여

10) dummy variable로 처리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의 명목변수 범주 보육유형(어머니 = 1, 조부모, 시설보육 = 0)  
 11) dummy variable로 처리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의 명목변수 범주 보육유형(조부모 = 1, 어머니, 시설보육 = 0)  
 12) dummy variable로 처리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의 명목변수 범주 보육유형(시설보육 = 1, 어머니, 조부모 = 0)

부, 취업의 긍정성, 그리고 영아연령이 보육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보육을 선택한 어머니들은 취업보다는 자녀양육에 비중을 두어 취업 신념에 있어 취업의 긍정성을 낮게 평가한 반면, 조부모보육을 선택한 어머니들은 대체로 취업을 선택하고, 취업신념에 있어 어머니와 같은 안전하고 신뢰로운 양육자로 인해 마음 놓고 직장에 나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에 대한 긍정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시설보육을 선택한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의한 부담감이 영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선택이 용이하여 취업모일수록 시설보육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과 보육선택이 어머니의 보육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영아를 둔 54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변인과 영아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관련변인과 보육선택을 살펴보고,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신념에 대한 차이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신념은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모일수록 취업의 긍정성을 더 높게 인식한 반면,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취업의 부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더 길수록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신념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연구(Johansen, Leibowitz, & Waite, 1996)와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일수록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 주지 못하는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비취업모일수록 더 강한 모성 이데올로기(신념)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김인지, 2005), 모성 이데올로기가 강한 어머니들은 취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가정에 머무르고, 모성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어머니들은 취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연구(Hattery, 2001)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모성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가정보다는 직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Hyde & McKinley, 1993; Vandell et al., 1988)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 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반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본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취업모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

식한 반면, 비취업모일수록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들이 비취업모들보다 자녀에게 더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자녀에게 더 낮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희경, 1981; 장영은, 2006; Caruso, 1992; Hock et al., 1980; Hock, Gnezad, & McBride, 1984; Melhuish, Moss, Mooney, & Martin, 1991; Pence & Goelman's, 1987)과 비슷한 결과이며,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취업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가정에 머무르기보다는 취업중심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Hock et al., 1984, 1980)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이, 취업모는 취업이 자녀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자녀의 독립성과 자립심을 더 기를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비취업모는 자녀양육이 소홀해지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 수 있어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다.

어머니의 취업상황인식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영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 또는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의 취업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변자영, 1996; 이연숙 외, 1991; Keith & Schafer, 1983; Voydanoff & Kelly, 1984)에서는 취업관련 특성을 역할갈등이나 가정생활만족도로 연결지어 직장 및 가정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가정변인 및 영아변인 간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어머니의 취업 여부 그 자체보다는 취업에 대한 자발성 여부가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역할 갈등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연구(박성옥, 양연숙, 광혜경, 1996; 조복희, 현은강, 1994; DeMeis, Hock, & McBride, 1988)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에 단순히 취업여부를 떠나 같은 취업상황에 있는 어머니 일지라도 직장이나 가정 중 두 가지 역할에서 뚜렷한 취업상황을 인식한 어머니는 갈등을 보이는 어머니보다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취업을 선택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상황인식에 있어 차이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어머니의 보육특성에 있어 취업모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상황인식이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타인보육시기가 더 빨랐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어머니가 취업모일수록 더 빨리 영아교육을 경험한다는 연구(이문정, 2003)와 부모의 특성 중 취업모일수록 부모가 아닌 타인에 의한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지경, 2004; Hofferth, Shauman, Henke, &

West, 1998)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의 특성 중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린 나이에 타인보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서문희 외, 2002; Singer, 1998)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보육특성 중 보육이용시간은 취업모일수록, 취업상황인식이 『항상 그만두어야겠다는 갈등을 겪는다』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남아일수록 보육이용시간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관련변수(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 아동성별, 아동건강상태, 가구원수, 아동수, 연령, 출생순위, 가구소득, 모의 취업여부, 모학력, 부직종)의 영향을 살펴본 분석에서 단지 어머니의 취업이 보육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어머니가 취업모일수록 보육이용시간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분석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pp. 50-58). 이는 비취업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취업모보다 많기 때문에 타인보육을 덜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보육유형에 있어 취업모일수록,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취업상황을 인식한 어머니일수록, 영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시설보육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조력자가 없으며,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취업모들의 자녀들이 보육시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기관의 유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설명한 선행연구(김지경, 2004)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특성 중 어머니가 취업모일수록 친인척 또는 시설보육과 같은 타인에 의한 보육을 이용한다는 연구(김승권 외, 2005; Hofferth, Shauman, Henke, & West, 1998)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 단독으로 양육하는 모성보육을 이용하고, 영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어머니 이외의 타인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강기숙, 2009; NICHD, 2005; Pungello & Kurtz-Costes, 1999)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와같이 영아의 연령이 어릴 경우 어머니가 출산 후 수유, 배변, 목욕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 요구와 보호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반면, 영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취업복귀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교육에 치중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전문교사 및 보호기관을 통해 대리보육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인보육의 비율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보육선택에 있어 보육특성과 보육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변인 중 어머니의 취업여부, 영아의 연령, 취업과 관련된 변인 중 취업신념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보육특성 중 보육시작시기에 있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의 긍정성이 높을수록, 더 빨리 타인보육을 시작하였으며, 보육이용시간에 있어 취업의 긍정성이 높을

수록,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 타인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비취업모일수록 시설보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보육을 선택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취업이 보육선택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취업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자녀를 보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연구(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이문정, 2003; 조은진, 1998; Caruso, 1992)와 취업에 따라 보육선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나정 외, 2006, pp. 43-145; 임유경, 2008; Melhuish et al., 1991; Michelson, 1990; Pence & Goelman, 1987; Pungello & Kurtz-Costes, 1997)과도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최적의 보육선택을 결정하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취업은 보육선택의 중요한 결정단서로서 취업과 관련된 여러 변인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도털 서비스가 요구된다.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갈등을 일으켜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Pool구축과 경제활동인력 수급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로 인하여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과 같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점점 증가하여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기에 수요자인 어머니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보육도털서비스의 확대가 요청된다.

둘째, 영아보육은 0~36개월 미만의 어린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아동의 월령과 특성에 따른 맞춤식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다. 영아의 발달시기를 단지 연령에 따라 단편적으로 묶어 영아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영아발달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영아의 월령에 따라 보육선택 결정자의 보육선택에 대한 요구가 다름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어머니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 비록 자녀의 월령이 어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자신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전문적인 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갈구하고 있었다. 이에 베이비시터, 조부모보육과 같은 재가보육뿐만 아니라 영아전담기관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어린이집과 같은 시설보육을 통한 다양한 영아보육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선택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신념과 취업에 대한 태도, 취업상황에 대한 인식은 보육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므로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요청된다. 영아보육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은

보육선택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어머니 자신의 취업에 대한 신념, 태도, 인식은 보육선택의 차이를 가져오고, 자녀의 양육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 본인 스스로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적 제한이 되지 않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선택적·탄력적 근무제도, 직장보육지원활성화와 같은 정책지원,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영아를 둔 취업모의 세금감면, 보육료지원 및 양육지원금 지원과 같은 가정내 양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보육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육내용과 보육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서울과 주요도시에 한정된 보육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중소도시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에 대한 선택권과 권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상과를 달리 영아기 자녀를 둔 보육선택이 다양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역적 한계와 보육전달체계의 소홀로 인하여 보육결정자인 어머니 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영아들의 보육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단편적인 보육선택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보육정책입안자들은 보육전달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기숙(2009). Multiple child care 유형과 영아 및 가족변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경숙(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어머니들의 양육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9-255.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39.  
 김승권(2005). 한국의 자녀양육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 지원 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김연희, 박응임(2006).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선택요인 및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4(8), 89-99.  
 김인지(2005).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역할 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경(2004a).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김지경(2004b).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6.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김희경(2003).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요인과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정, 서문희, 이미화, 김문정(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심층분석**.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류우영, 이숙(199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박성연, Rubin(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박성옥(1993). 3세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옥, 양연숙, 광혜경(1996). 취업모의 격리불안, 이중역할 긴장 및 생활만족도. **생활과학연구**, 제 2집, 169-182.  
 박정모, 김은주(2004). 영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모성 역할 긴장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4(2), 235-242.  
 박해미(1994).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변자영(1996). 취업주부의 자녀양육과 관계된 역할갈등과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보건복지부(2002). **2002 보육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서문희(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최혜선(2007). **영아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이옥, 백화중, 박지혜, 최진원(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 조사 보고**. 서울: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경화, 조복희(2009). 취업신념 측정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69-79.  
 육아정책개발센터(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이대균, 황주미(2008).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어머니의 어려움과 기쁨. **유아교육학논집**, 12(5), 103-132.  
 이문정(200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3), 173-195.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취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이희경(1981). 모의 취업이 자녀의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유경(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은, Pungello(2007). 가족소득 및 인종에 따른 영아 보육선택. **대한가정학회지**, 56(6), 21-33.
- 장영은(2006a). 취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영아의 보육이 어머니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3), 101-116.
- 장영은(2006b). 영유아 시기의 어머니의 취업이 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9), 89-101.
- 정대수(2005).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금숙, 조중열(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조은진(1998).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로서 학부모의 목적과 기관 선택 기준. **한국영유아보육학**, 15, 191-208.
- 통계청(2008).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대전: 통계청.
- 한국보육시설연합회(2005). **2004년 전국국공립보육시설실태조사**. 서울: 전국국공립분과위원회.
- 한국아동학회(2002).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Abidin, R. R.(1992).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 & Rovine, M.(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7.
- Burris, B. H.(1991). Employed mothers: The impact of class and marital status on the prioritizing of family and work. *Social Science Quarterly*, 72, 50-66.
- Caruso, G. L.(1992). Patterns of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are for a sample of two-year-olds. *Journal of family Issues*, 13, 297-311.
- DeMeis, D., Hock, E., & McBride, S. L.(1988). The balance of employment and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feelings about separation from their first born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22, 627-632.
- Dietz, L. J., Jenning, K. D., & Abrew, A. J.(2005). Social skill in self-assertive strategies of toddlers with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1), 94-116.
- Dix, T. H., Reinhold, D. P., & Zambano, R. J.(1990). Mother's judgment in moment of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6, 465-486.
- Early, D. M., & Burchinal, M.(2001). Early Childhood care: relations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care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475-497.
- Emlen, A. C.(1999). *From a parent's point of view: Measur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Portland, OR: Portland State University and the Oregon Child Care research Partnership.
- Farel, A. M.(1980). Effects of preferred maternal roles, maternal employment and sociodemographic status on school adjustment and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1, 1179-1186.
- Farkeas, S., Duffet, A., & Johnson, J.(2000). Necessary compromises: *How Parents, employers, and children's advocates view child care today*. Washington, DC: Public Agenda.
- Greenberger, E., Goldberg, W. A., Crawford, T. J., & Granger, J.(1988).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35-59.
- Greenberger, E., & O'Neil, R.(1990). parents' concerns about their child's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fathers' and mothers'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21-635.
- Hattery, A.(2001). *Women, Work, and Family: Balancing and weaving*. Thousand Oak: Sage Pub.
- Hock, E., Christman, K., & Hock, M.(1980). Factors associated with decisions about return to work in mothers of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83-402.
- Hock, E., Genzda, M. T., & McBride, S. T.(1984). Mothers if infants: Attitudes toward employment and motherhood following birth if the firs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1, 425-431.
- Hoffman, S. L., Shauman K. A., Henke, R. R., & West, J.(1998).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early care and*

- education programs: Data from the 1995 National Household Education Survey*(NCES 98-12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Hunts, H. J. H.(1992). Non-traditional work schedules and their impact on child care choice. Proceedings of the Southeastern Regional Association of Family Economics / Home Management, Columbus, OH 27-36.
- Hyde, J. S., & McKinley, N. M.(1993).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metric analys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7(2), 177-191.
- Johansen, A. S., Leibowitz, A., & Waite, L. J.(1996).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59-772.
- Keith, P. M., & Schafer, R. B.(1983).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877-884.
- Melhuish, E. C., Moss, P., Mooney, A., & Martin, S. (1991). How similar are day-care groups before the start of day car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1-346.
- Michelson, W.(1990). Childcare and the daily routin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3, 353-366.
- Moorehouse, M. J.(1991). Linking maternal employment patterns to mother-child activities and children's schoo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295-393.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3), 296-30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maternal care for infant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9(2), 389-408.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5). Child care and child Development.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Pence, A. E., & Goelman, H.(1987). Silent partner: Parents of children in three types of day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103-118.
- Pungello, E. P., & Kurtz-Costes, B.(1999). Why and how working women choose child care: A review with a focus on infancy. *Developmental Review*, 19(1), 31-96.
- Pungello, E. P., & Kurtz-Costes, B.(2000). Working women's selection of care for their infants: A prospective study. *Family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Family & Child Studies*, 49(3), 245-255.
- Singer, J. D., Fuller, B., Keiley, K. K., & Wolf, A.(1998). Early child-care selection: variation by geographic location,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structure.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124-1244.
- Sosinsky, L. S.(2005). Parental selection of child care quality: Income, demographic risk, and beliefs about harm of maternal employment to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Thompson, P. J.(1993). Day care for ill children: An employed mother's dilemma. *Issues in Comprehensive Nursing*, 16, 77-89.
- Vandell, D. L., Henderson, V. K., & Wilson, K. S.(1988).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with day-care experiences of varying quality. *Child Development*, 59, 1286-1292.
- Vandell, D. L., & Wolfe, B.(2000). *Child Care quality: Does it matter and does it need to be improved?* Washington, DC: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Voydanoff, P., & Kelly, R. 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881-982.
- Wolf, A.(2004). Child-care selection from birth to age three: The influence of family economy, demographics, and parenting attitu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USA.

접 수 일 : 2010년 4월 2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6월 15일